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# 가계부채 문제와 금리인상

□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의 꾸준한 증가세가 나타났으며 최근 들어 증가세가 강해지고 있어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.

- 한은에 따르면 2010년 말 기준 가계신용\* 잔액이 795조 4천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에 비해 25조 3천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.
  - 시중은행들이 연말 실적을 위해 주택대출을 크게 늘린 데다 경기회복으로 신용카드를 통한 구매가 증가한데 기인함.
- 가계부채는 2007년 약 630조, 2008년 약 688조, 2009년 약 733조, 2010년 795조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냈으며 3년간 가계부채 증가율도 국내총생산(GDP) 증가율을 상회하는 26.1%를 기록함.
-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한국이 150%를 나타내 일본 135%, 미국 128%, 독일 98%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 - \* 가계신용은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가계부채를 말함.

□ 금리인상에 대한 평가는 물가상승 압력의 해소를 위한 조속한 금리인상론과 경기하락의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금리동결론이 양립하는 가운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해져 혼란을 야기하고 있음.

- 물가를 둘러싼 대·내외적인 환경 악화로 물가상승 압력이 최고조에 달했으며 최우선적인 경제정책과제인 물가안정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빠른 금리인상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는 주장임.
  - 이상기후로 인한 농·수산물 가격 상승과 더불어 최근 리비아 사태로 인한 유가 폭등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.
-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와 유가 폭등으로 경기하락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리 인상은 경제에 줄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존재함.
- 빠르게 증가하는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을 위해 금리인상을 단행하여 가계부채의 증가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과 현 수준에서의 금리인상은 이자부담을 가중시켜 서민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.

(국내 가계부채 800조 육박 등, 한국경제 등, 2/23)